

APRIL/2019

Vol. 29

EMMANUEL

임마누엘 [선교호]

그러므로 가라!

- 선교, 왜 해야 하는가? - 목회칼럼
- 선교사 징수에 대해
- 나바로, 이었던, 엑스포칼스 선교하여

특집

2019 임마누엘 선교대학
부활과 선교

시대를 분별하라

목회칼럼 | 김민준 | 다문화는 우리의
과제 - 기자의 눈과 역동자의 눈

임마누엘 인터뷰

시대를 읽은 남한 그분, 선교학전문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임마누엘 목회자 칼럼

니를 살리는 전양

선교에 육친 된 것조차 행복을 나누어

특장 소개

임마누엘 출판사 | 임마누엘 - 자유로운
선교를 위한 - 고령화시대 특장
선교의 현장과 수업을 알리고 복고,
부역자의 길 - 231214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가라-

Contents

목차

02 선교호를 열며

말씀의 창

담임목사 칼럼 - 선교, 왜 해야 하는가?

08 빛과 소금

믿음의 선진들

시대를 분별하라 1 - 기자의 눈

시대를 분별하라 2 - 목회자의 눈

특집- 2019 선교대회

부활과 선교

선교대회 현장 스케치

선교대회 후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자

주님 손을 잡고

선교대회를 마치며

Therefore Go!

Pastor Leon's Sermon Testimony

땅 끝에서 온 편지

29 임마누엘 이모저모

제직 세미나를 마치고

선교사 파송예배

중·고등부 세례 소식

중·고등부 선교 바자회

임마누엘 인터뷰

Contents

목차

38 실만한 물가

임마누엘 카툰

시가 있는 풍경

도서실 신간 서적

임마누엘 레시피

임마누엘 사행시

46 임마누엘 사람들

나를 살리는 찬양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집

신앙의 대 잇기

세례 간증

하나님과 만난 유수경

Jesus is My Lord and Savior

치유 간증

선교 간증

나바호를 처음가다

God is working all the time

아이티 선교를 다녀와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목장 소개

북부 평원 자바 목장

동부 평원 브라질 목장

크리스찬 명언

목자 소개

행복한 사람들



선교, 왜 해야 하는가?

예배, 교육, 구제 등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다른 일들도 많은데, 왜 우리가 선교를 꼭 해야 하나요? 더욱이 선교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땀과 재정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한 번 단기선교를 다녀오려면, 3개월간 매주 훈련을 받아야 하고, 대부분 먼 나라로 가기에 비싼 항공료가 들고, 보통 10~20일 동안 집을 떠나 객지에서 먹고 자야 하며, 그러기 위해 종종 일 년 휴가를 모두 써야 하는데, 그래도 꼭 선교를 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며 선교지를 찾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선물, 약, 영어 공부, 컴퓨터 교육, 음식, 의료봉사 등은 열렬히 환영하지만, 선교의 본질인 복음 전파에는 냉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런 큰 댓가를 치르면서 선교를 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내리신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이기 때문입니다 (마28:18-20). 교회 존재의 궁극적 목적인 예배는 천국에 올라가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선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롬10:13-15).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또 가야 합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생명’ 없는 종교가 전부인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코가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는 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들어야만 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구상에는 태어나서 한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랍의 무슬림 진영뿐 아니라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에 사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그런 사람들이며, 중국, 북한 등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일생에 단 한번도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채 죽어 지옥에 간다면 너무 가엽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막16:15). 나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전함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외칩니다(요3:16).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듣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17:15, 20).

글 | 손원배 담임 목사

시대의 낮은 사람들,
나환자와 걸인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목사

(1880. 5. 2~1966. 6. 14)

최근 2018년 SBS 방송이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 '작은 예수 오방 최흥종' 을 방송하였고, CGNTV에서는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국순례기>의 제 1편으로 '나환자와 걸인의 아버지-최흥종 목사' 가 방영되었다.

광주광역시 내에는 '오방로' 라는 이름의 도로가 있고, 3.1운동 100주년 이 되는 올해 개관을 앞둔 오방 최흥종 기념관 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잊혀진 인물 최흥종을 조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광주 최초의 장로(1912), 최초의 목사(1921)인 최흥종은 1880년 광주 시 동구 불로동에서 태어났다. [본명 최영중(崔泳琮)]. 최흥종목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소년가장으로 방황하며 청소년기에는 무쇠 주먹을 휘둘렀던 건달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런데 광주 선교부가 개설된 후 김윤수 씨(후에 광주 초대장로)의 인도로 배유지(Eugene Bell) 선교사 집에 드나들다가 광주의 초대 교인이 된다.

1906년 광주 북문안교회(현 광주제일교회) 신자가 된 최흥종은 1908년 광주 제중원 윌슨(Robert M. Wilson) 선교사의 여학 선생 겸 조수로 근무하던 중 1909년 장흥지역에서 전도 여행 중이던 오웬(Clement C. Owen, 오기원)선교사가 급성 폐렴으로 위급하게 된다. 윌슨원장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목포에서 광주로 오던 포사이드(Wiley H. Forsythe) 선교사가 길가에서 신음하는 나환자 여인을 발견하게 된다. 나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에게 자신의 털 외투까지 벗어 입힌 채 말에 싣고 제중원으로 데려와 예수님처럼 정성

껏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 최흥종은 크게 감동을 하여 예수를 만난다. 이로 인해 이웃과 민족을 재발견하고 크게 회심하여 평생 사회 복음 운동에 전력을 다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전환점이 된다.

이어 광주 나환자진료소와 나환자교회 건립을 위해 1,000평의 땅을 기증하고 윌슨의 추천으로 병원 책임자가 되어 봉사한다. 1912년 8월에는 김윤수와 함께 북문안교회 장로로 임직을 받고, 1914년 8월 전라 노회에서 신학교 지원을 허락받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며, 1917년 1월 북문안교회에서 설립한 북문밖 기도처의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목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한센병 환자의 복지를 위해 광주에서 한양까지 11일간 나환자 수백명을 이끌고 '구라 행진' 을 주도한다. 총독부까지 들어가 소록도에 있는 자혜원을 갱생원으로 확장해 주라는 요구를 받아내어 전국에 흩어져서 소외당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집단 이주토록 공헌한다. 최초의 기독교 사회운동가, 빈민구제 운동가, 노동운동가, 광주 YMCA 창설자(1920), 교육운동가, 마약퇴치 운동가,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 그리고 신간회와 독립운동까지 최흥종이 걸어온 길 위에는 광주의 근현대사가 흐르고 있다. 최흥종목사는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광주지역의 3·1운동 거사에 총 책임을 맡은 최흥종은 이로 인해 1년 징역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대구형무소에 이감되었고 1920년 6월 출소 후, 1920년 12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다. 이듬해 1921년 1월

목사안수를 받고 곧바로 북문밖교회(현 광주중앙교회)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조선장로교총회가 일제억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행하자 이를 거부하며 한국교회는 죽었고 자신도 죽었다면서 지인들에게 '최흥종 사망통지서' 를 보낸다. 그리고 사람이 얽매이고 빠지기 쉬운 색욕(色慾), 식욕(食慾), 물욕(物慾), 명예욕(名譽慾), 생명욕(生命慾) 다섯을 버렸다는 의미에서 오방(五放)을 선언한 뒤 광주 무등산으로 향한다. 마지막으로 기거했던 무등산 곳곳에는 세상과 담을 쌓은 이후에도 줄곧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최흥종의 흔적이 남아 있다. 최흥종 목사는 윌슨 선교사와 함께 봉선리 나환자진료소(1912)를 세운 것 외에도 여수 애양원(1926), 음성나환자 자활을 위한 나주 호혜원(1955), 결핵 요양원인 광주 송등원(1958), 무등원(1962) 등을 설립하여 구라 운동, 폐결핵 사업과 빈민 운동에 평생을 헌신하며, 광복 후에는 허백련 화백과 함께 삼애(三愛) 학원을 설립하여 가난한 농촌 청년들을 교육하고, 두 번이나 시베리아 선교사(1922, 1927)로 파송되어 복음 선교에 힘쓴다.

그가 1966년 5월 14일 86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광주시는 광주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그의 보살핌을 받은 사람들의 "아버지, 아버지" 를 외치는 통곡 속에 '광주시 사회장' 으로 이루어진다.

최흥종목사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근대사를 거치는 동안 늘 낮은 곳에서 소외되고 나약한 이들과 동고동락했던 시대의 성자(聖子)로 불린다. 그는 교회와 사회를 하나로 보았으며 사회구성원인 민중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긴다.

글 | 이현철 장로 (특별기고, 광주제일교회)



‘산불’ ‘홍수’ ‘허리케인’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 커지는 리스크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세달전에 이사 왔어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항상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사온 뒤로 내내 비가 오네요. 제가 시애틀 비를 이 곳에 가져왔나봐요” 최근 만난 지인의 말이었다. 샌프란시스코 & 베이 지역에 지난 겨울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라면 항상 비가 많이 오는 도시로 인식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실리콘밸리는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이 분의 머릿속에 실리콘밸리는 ‘비’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시즌에 무려 100일간 비가 왔다는 분석도 있다. 봄이 왔음에도 베이 지역은 여전히 춥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겨울에는 베이지역 산 정상에 눈이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우기 전에는 캘리포니아는 화마가 마을을 삼켰다. 지난해 뷰트 카운티 파라다이스 마을에 난 ‘캠프파이어’ 산불로 86명의 목숨과 1만5000 채의 주택이 소실됐다. 이 산불은 서울 면적의 두 배 1173km²를 태웠으며 약 100억달러의 재산피해가 났다.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동원하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대피령도 내렸다. 이때 샌프란시스코 공기 질이 세계 최악의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는 ‘지진’ 에 항상 대비해왔다. 지진 대피, 대응 훈련을 킨더부터 한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에서 ‘산불’ 대비 훈련을 해야 할지 모른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숲이 우거진 지역인데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고 더 건조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숲에는 죽은 나무들도 많고 주민들은 점점 숲을 파고들어 집을 짓고 있다. 파라다이스 마을은 숲 한가운데 있어서 산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도 없어 피해가 커졌다.

캘리포니아 주 일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수자원 부족과 홍수, 산불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지난 1982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400여개의 강설량 측정 센서 등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에 겨울 시즌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이 줄어들면서 토양이 일찍 마르고 산불 시즌이 길어지게 된다. 스키 리조트 산업은 물론 캘리포니아 주의 자연유산들도 타격을 입게된다.

이 같은 자연재해를 전체 미국으로 보면 갈수록 ‘역대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90cm 이상의 폭우를 뿌리면서 최소 51명이 숨졌으며, 재산 피해가 170억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를 덮친 허리케인 마이클은 시속 250k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미국에서만 45명이 숨졌다. 지난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세계 10대 자연재해가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의 구호단체 크리스천에이드가 펴낸 ‘비용 추산: 기후변화의 한 해’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전 세계 곳곳에



서 발생한 자연재해 중에 피해 규모가 가장 큰 10건의 피해액이 최대 947억달러(106조원)에 달했다고 조사했다.

지난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홍수와 가뭄, 태풍과 허리케인 등 온갖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기후변화가 자연재해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상 이변의 빈도를 높이거나 위력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리포트를 낸 크리스천에이드의 캣 크레이머 박사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언급하기 꺼리고 미래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우리의 삶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의 아이러니는 책임이 가장 적은 세계 빈곤층이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여름 폭염’ 으로 고생했다고 하며 지금은 ‘미세먼지’ 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자신에게 피해가 있기 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기후 변화’ 는 삶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 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연재해 ‘리스크(Risk)’ 가 커지고 있으며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월 16일 발표한 ‘GLOBAL RISKS REPORT 2019’ 에서는 최근 3년간 환경 리스크가 발생했으며 파급력 측면에서 리스크 상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극단적 기상이변으로 인해 환경정책의 실패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 리포트에서 “우리가 자각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WE COULD BE SLEEPWALKING INTO A NEW CRISIS)” 고 말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통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집단적 노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국가간, 정파간 분열이 증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캠프파이어’ 를 두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관리 부재를 지적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후변화’ 에 대응하지 못하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힘겨워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갈수록 정치보다는 종교, 즉 교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종교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또 교회를 통한 구호, 선교 활동이 중요해질 것이다. 교회도 이에 대비하고 먼저 손을 내밀 준비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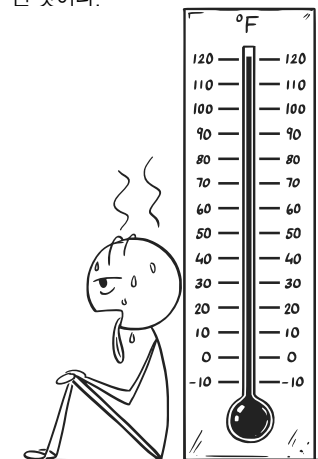
글 | 손재권 (남부 평원 브니엘 목장,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환경 파괴와 재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과학계에서는 거의 정설로 알려져 있는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이슈 또한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한다는 사실에 대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마음이 든다. 벌써 오래전, 앨 고어 전 부통령이 제작했던 '불편한 진실'이라는 환경 재앙에 관한 영화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자 모든 사람이 앨 고어의 영화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좀 슬프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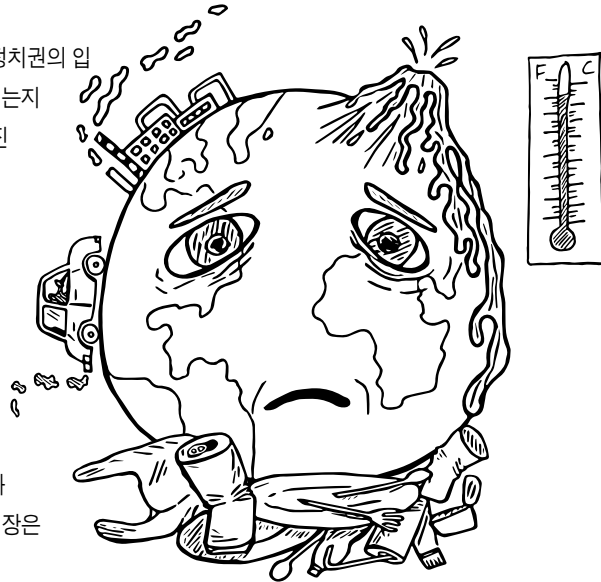
내가 세상에 대해 너무 순진하거나 무지한 것은 아닌지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선택의 결이 달라진다. 2018년도 3월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89%가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탓'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공화당 지지자들은 35%만이 동의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입장은 과연 존재하는가.

흔히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이라고 알려진 창세기 1:28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고 번성시킬 하나님의 '동반자'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펼쳐낼 당연한 임무였다. 인간이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실현하고, 각 사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이끌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지구의 지배자가 되고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껏 남용해도 되는 것인양 오해한 것이다. 매너저가 되기 보다는 왕과 정복자가 되고픈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창조 세계에 이어져서 세상은 인간의 남용으로 점점 에덴을 지향하기 보다는 바벨론을 지향하게 되었다. 지나친 육식에 대한 탐욕으로 고통 받는 식육 동물들에 대한 학대 등을 떠올리면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임무는 하나님이 세상에 심으신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날날이 평가될 것이다. 만일 곧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있는 크레딧 카드를 맥시멈으로 마음껏 사용하겠어요. 카드 빚을 갚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는가.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88파운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는



기사를 읽으며 경악하게 된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동물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는 마음이다. 장차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인 행실을 통해 어떻게 실천되고 이루어졌는지를 관심 있게 들여다 보시며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세상이 점점 더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은 확실하다. 성경적으로도 그 방향이 분명히 맞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다. 그 의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질서를 통해 새하늘과 새땅을 만드실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영원히 이 땅의 가치가 지속될 것처럼 여기는 것은 신앙적 나태함이다. 칼리코라는 기업에서는 인간의 노화 방지를 통한 '영생'에 대한 연구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불멸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라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살다보면 지나친 기술적 낙관론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두는 실패한 아담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론이다.

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는 점점 낡아서 없어지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회복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롬8:21). 한국에서는 미세먼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점점 더 다가올 세상의 종말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근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자원들을 아껴쓰고 사랑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값지 않은 크레딧 카드 빚, 너무 많이 버렸던 플라스틱 쓰레기, 태우지 않아도 되었을 환경 쓰레기, 탐식과 먹방으로 먹다 버린 음식물, 땅과 물을 오염시켰던 오염 물질, 그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은 어떤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실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이지만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빠진 지구의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도해 본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3:12-14)."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숙제이다.

글 |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신앙위원회 담당)

부활

부활과 선교

올해에도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부활절이 뭘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라고 대부분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이 부활절 하면 계란이나 토끼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계란이나 토끼는 후대의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활절이면 선교가 생각납니다. 어쩌면 엉뚱한 연결같이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고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첫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의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보낸다’ 니요.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만 본다면 이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무서워서 다들 숨어 있는데, 누가 들어올까 봐 문도 꽁꽁 잠가 놓고 있는데, 밖으로 내보낸다니요... 단지 상황과 환경만 본다면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실현할 힘과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이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선교는 부활의 주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여러 번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선교” 라는 단어가 직접 표현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낸다.” 는 단어가 선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서 “제자들에게 보낸다.” 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령”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18-20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위임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대위임 명령에서 핵심은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s)” 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제자 삼기 위한 첫 단계는 우선 “가는 것(go)” 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제자 삼으라” 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그러므로 가라” 하시는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것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금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라 (πορεύομαι)” 는 동사는 “출발하다, 떠나다, 경계를 넘는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경계, 인종적 경계, 문화적 경계,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가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

씀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였습니다. 한글 성경은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본들은 “온 천하에 가서 (Go into all the world)” 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대위임 명령에 나오는 “가라” 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교를 명하시는 장면이 상세히 나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이 일의 증인” 으로 세우셨습니다(눅 24:47-48). 주님의 부활이 선교의 시작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선교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서신서를 저작하고, 신약 교회를 세웠던 바울도 선교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 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갈2:8). 자기에게 이방 선교의 책임이 지워져 있다고 했고,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라 하기도 했습니다(고전 9:16, 롬 1:14).

바울이 이방선교의 일꾼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부활절에 선교를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듯이, 선교도 당시에 국한된 명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선교를 명하셨던 부활의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선교를 명하셨으니, 선교지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해외에 가든, 국내에 가든, 가까운 이웃에게 가든, 직장으로 가든, 어디든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 김인환 목사
(서부 평원, 선교위원회 담당)

선교

2019년 임마누엘 선교대회 현장

그리므로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19)”

2019년,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올해를 ‘선교의 해’ 로 지정했다. 임마누엘 교회에 속한 가정과 목장, 그리고 교회의 세 겹줄이 하나가 되어 선교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목장과 소그룹 등이 형편에 맞게 선교의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선교 아이템 소개지를 제작하여 선교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 드디어 일 년간 기도로 준비해온 임마누엘 선교대회의 사흘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선교대회는 가까운 곳과 먼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임마누엘의 목장과 성도들의 마음에 선교를 향한 열정을 불붙게 하기 위한 기획으로, 미국 국내와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와 싸우며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을 실행 중인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획되었다.

첫째 날 주의 나라 주의 뜻이 크로아티아, C 국, 산호세의 가운데

선교대회에는 베이징역과 엘에이 지역에서부터 러시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터키,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25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과 특강을 전해 주셨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2월 22일, 본당에서는 우렁찬 청년부 찬양팀의 찬양을 필두로 선교대회의 개회가 선언되었다. 크로아티아의 전영진 선교사님과 C국의 강현정 선교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와 동시에 EM 예배실에서는 LA 지역의 다문화 사역을 위해 Montage Church를 설립하고자 하는 Leon Brown 선교사님의 말씀이 베이징역의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인 청소년 및 초등부 아이들도 참석한 가운데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꼬마 선교사! 키도 작고 어리지만 누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최고라고 자랑할래요”

유년부와 유치부에서도, 송호영 전도사와 김숙경 전도사의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어린이 선교사들의 열정이 가득한, 임마누엘 선교대회 대단원의 시작이었다. 오랜 준비 기간으로 지쳤을 때 즈음, 400여 명의 선교사가 항해하는 배에 오르며 크로아티아 선교의 발을 내디딘 전영진 선교사님의 말씀은 그 어떤 작은 시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달고 있던 종양으로 인해 피붙이인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이라는 걸 모르며 평생을 살아온 여성이 아무 조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볼짜리 성경책을 들고 문을 두드리며 말씀을 전하던 중, 삶의 마지막을 선택하기 직전에 만난 한 여성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그 어떤 세상의 사랑과 포용보다도 밝은 빛이자 따뜻한 안식이었음을 나눈다. 2볼을 가지고 있던 2000볼을 가지고 있던, 정하신 그때 우리를 보내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며 ‘아멘’ 을 외친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어린 나이부터 가는 방법을 피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해왔던 C 국의 강현정 선교사님이 결국 그곳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선교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한 그대로를 준비하셨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한시의 오차도 없다는 것. 그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 일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뒤에는 처음부터 준비되어있는 주권자가 계신다는 것은 선교대회의 막이 오른 이날 임마누엘 교회의 곳곳에서도 불길처럼 타올랐다.





둘째 날 예수님의 비전과 지상대명령, 선교

둘째날에는 새벽집회, 오후 3시에 “콜링 (calling)” 영화상영이 있었고, 저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저녁 식사 후에 많은 특강이 교회 곳곳에서 열렸다.

“세계 선교, 세대 선교 (World Mission, Generation Mission)”

귀한 선교사님들의 특강을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세계 선교, 세대 선교” 라는 제목이 무척 마음을 끌어서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천종후 선교사님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성세대들은 자녀 세대도 또 하나의 ‘미전도 종족’ 임을 기억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려고 수많은 노력과 돈을 들이면서도 정작 천국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거저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하셨다.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넣고자 하는 열정 못지않게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도전하셨다.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고, 믿음을 지키며 자라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며 살도록 양육하는 것도 가정에서 시작되는 선교라는 것이다. 먼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세계선교’ 라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세대선교’ 인 것이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6-7)”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지 교회 목회자나 주일교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다. 부모 된 기성세대들은 현재 어린이/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낮은지 각성하고 다음 세대 선교에 깨어 힘써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특강 후에는 본당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과 선교사님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천종후 선교사님(케냐)과 장상순 선교사님(M국)의 생생한 믿음과 간증, 사역

일부를 함께 맛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주님께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삶을 드린 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큰 기쁨과 위안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성경책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세계 각지의 곳곳에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랬을까?

선교대회가 그저 교회 차원의 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글 | 한연선, 김연희 (편집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므로 가라” (마 28:19)는 슬로건을 걸고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사흘 동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진행된 선교대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으로 제2막을 열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젊은 시절 사영리 책자를 들고 다니며 “사영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며 노방전도도 서슴지 않았던 나는 어느 순간 ‘전도는 교회 전도팀에서 선교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하고 전도지를 손에서 내려놓고 편안한 주일 신자가 되고 말았다. 전도에 대한 나의 열정과 노력은 하루빨리 열매가 열리지 않고 그 밖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로감과 의심으로 변질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나는 내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줄 것에만 기도하고 성경 지식만 쌓아가며 얼마의 선교 헌금만 하면 내 몫을 다한다고 세뇌하면서 진정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는 눈과 귀를 닫고 살았다. 그래서였을까? 나의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행복보다는 두려움과 부담스러움만이 존재했던 것 같다.

그러던 나에게 이번 선교 대회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 내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여기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꾼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꾼으로, 탄식하며 중보하는 일꾼으로, 생명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일꾼 등으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9-10) 는 말씀을 통해 감사하게도 그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현재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또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세대 선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알아서 교육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은 접고 가정 예배의 생활화, 목장 참여도 높이기, 어린이 목자로 세우기 등에 열심히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화요 여성 예배를 더욱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내는 것이다. 부족한 나를 운영팀의 팀원으로서, 일대일 제자 양육 과정의 양육자로서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더욱 순종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척박한 선교지로 나선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너무 편하고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소중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실 것임을 이제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다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교육과 제자 양육을 통해 매일 매일 성장하는 우리가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글 | 최유나 (멕시코칼리 목장, 화요 여성 예배 운영팀, 새가족 바나바팀)



주님 손을 잡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작년 말쯤 2019년을 선교의 해로 지정하고 2019년 한 해의 모든 단기선교를 목장별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남편이 우리가 후원하는 코스타리카로 비전 트립을 가보면 어떨겠냐 하고 의논을 했다. 우리 목원들은 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아마도 우리 둘만 가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 주에 목장에서 비전 트립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두 가겠다고, 이왕 가는 거 비전 트립 말고 진짜 단기 선교를 하러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마음속으로 진짜 놀랐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선교사님께 연락했을 때 전영진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이기 때문에 의사와 치과 의사가 같이 와서 원주민들을 모으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다. 치과 의사는 섭외가 금방 되었지만, 내과 의사는 쉽지 않았다. 다들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았고 어떻게 선교여행의 윤곽을 잡아야 하는지 그것도 막막하였다. 그러는 중에 2019년 2월 선교대회에 전영진 선교사님이 초청되었다. 선교사님이 오시면 조금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생소한 분이시고 특강을 하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일까 싶어 살짝 걱정되어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만이라도 꼭 자리를 지키자고 다짐을 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기우가 되었다. 특강실은 추가로 의자를 놓아야 할 만큼 많은 분이 모였고, 우리는 선교지의 문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과 선교지에서는 선교사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들이 마음에 남았다.

선교대회는 너무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임 지도 몰랐고, 이렇게 뜨거울 줄도 몰랐다. 선교대회가 끝나고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 기쁜 가운데 의견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고 계신 소망을 보았다. 기획에 자신이 있는 자매님은 선교팀장으로, 사진에 자신이 있는 형제님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음식으로 크래프트로 미용과 찬

양과 율동으로 말씀 전하는 사역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대로 역할 분담을 하였고 뜬 구름을 잡는 것처럼 흠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느꼈다.

또한 1월부터 매일 밤 9시면 선교사님들과 같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다. 의료 사역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의료 사역자를 보내 주셨고, 이것저것 뿌영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여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원하는 것은 코스타리카의 원주민들이 육체와 영이 함께 치유를 받는 것이다. 그들은 의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걸어 그곳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들의 육체가 고침을 받는다 해도 영이 죽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소원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돌아가시기 전 우리 부부에게 이번 선교팀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더 좋다고 말씀하셨다. 선교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선교에 대한 생각과 습관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많아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고 하셨다. 그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 되기를 원하신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이다. 날마다 내 안에 쌓여가는 때를 닦고 주님 뒤를 어린 아이같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습관과 타성에 젖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귀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우여곡절도 많을 것이고 때로는 실수도 하겠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갈 것이다. 너무 마음이 벅차고 감사하다.

글 | 김한경 (코스타리카 목장 부목자, 2부 성가대)



선교대회를 마치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고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을 꼽는다면 모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10~12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하던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그가 쓴 모세 5경이 많은 종교와 사상의 시석이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며, 글 끝에 두 번이나 연이어서 하나님께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confirm/affirm for us the work of our hands)”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루하루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잘했다며 인정해 주실지에 대한 두려움은 하는 일의 종류나 경중과 관계없이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분명히 드러내실 때까지 없을 수 없는 것인가 싶습니다.

선교 대회 중에 여러 선교사님을 보다 가깝게 대하면서 열정적이던 대학생 시절에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가 되는 길을 고민하던 때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막연히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온 교회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제”가 선교사라는 것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어 확인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론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까지 나갔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으나 싶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선교 대회 중에 선교사님들과 더 가깝게 교제하면서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보다는 선교사님들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신지에 관심이 더 갔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확신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지만, 선교사님들께서 느끼셨을 갈등과 고뇌를 알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중국을 섬기는 것으로 헌신하신 선교사님께서, “중국 교회 스스로 중국 교회를 섬길 만큼 자랐으니, 이제 외부 선교사는 떠나는 것이 중국 교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직은 도와야 하는 이런부분이 있고, 그때가 됐다는 확신이 생기면 물러나야죠.” 하며 담담히 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늦어지자 선교 단체 재정 담당자에게서 시작해 하나님께까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거의 무료로 얻은 공치로 온 가족이 파티하면서 감사로 바꾸셨다는 고백도 들었고요. 매 주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리러 나올지 걱정하시며 도시의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 34장 10-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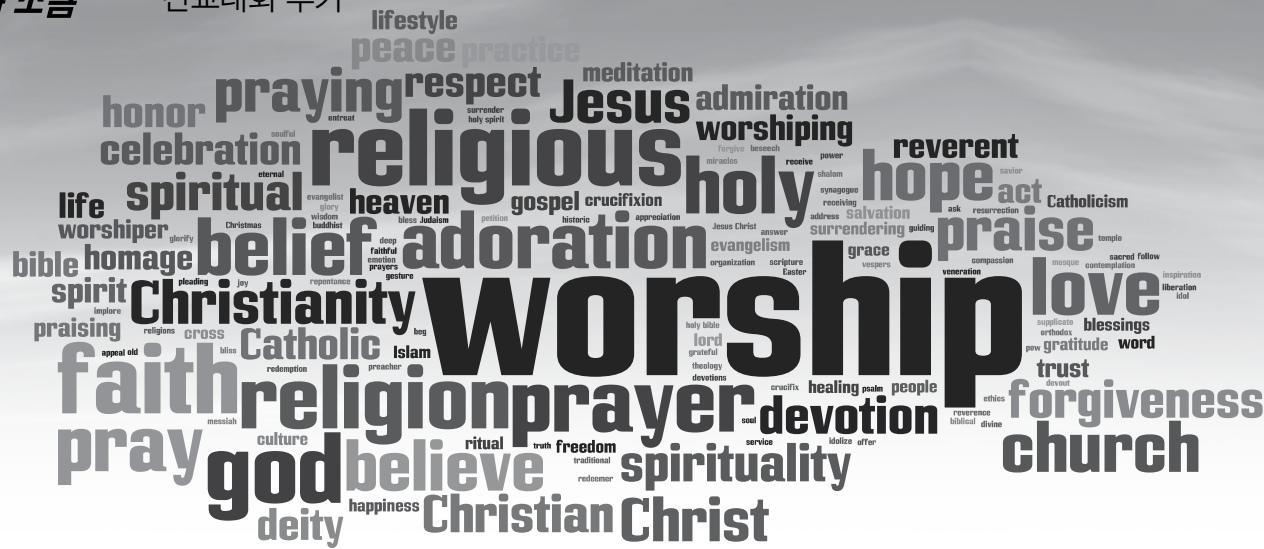
빈민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께서, 몇 년 동안 섬겼던 어린아이가 결국에 이웃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기쁨 속에서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십년 넘도록 섬겨도 여전히 이웃의 대부분 가정 이 여러 이유로 깨어져 가는 모습을 늘 보아야 하는 선교사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이웃과 하나님께 반응하던 모습들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나름대로 고민하며 세워가고 있는 내 생각과 어긋나거나 거스르는 말을 들을 때 쉽게 분을 내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서기는 커녕 더 상처를 주었던 제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목장 식구들과 의지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VIP를 판단하면서도, 목장 출석 상황 표에 더 많은 참석 숫자를 기록할 때 마음이 더 편한 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가시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한 선교 단체를 이끄시는 목사님께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을 자신과 단체의 최우선 순위 삼고 계시고, 그것을 잊지 않게 위해 노력하신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번에 직접 만났던 선교사님들께서 살아내고 계신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선교지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여 주신 생명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는 사람으로 자라나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주님께서 서 있으라 하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빛을 드러내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교사님들 뵈 때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기동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던 것처럼 (갈 2:9), 동역자로 악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원재
(나진 목장 목사, 사랑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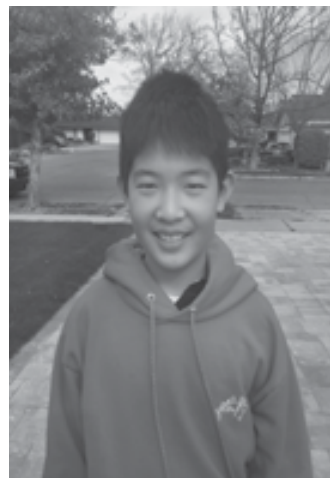


Therefore Go!

After a long day of Inreach meetings and Coding school, the time had come for the most waited time in my day, the second Mission Conference. Of course, I appreciate and look up to all missionaries as I listen to them striving to share the gospel to all corners of the world, but one missionary I really wanted to hear from was Pastor Paul Suh, because he mainly serves in Mexico, where I really want to go for missions. As 5:55 rolled around, I waited for the other pastor to finish his introduction so I could actually hear him speak what God wants me to hear through him. When he came up to the stage to preach, I felt nothing different until he started to “yell.” I fel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his words. His service was about how he met Jesus, his works in Mexico and so on. It was basically his testimony but it was no ordinary testimony. I was shocked by how he had a strong relationship with God, reading 10 chapters a day, and also meeting Jesus in person right after he got saved. I was also surprised by how much God was doing through him. After the seminar, I had another opportunity to hear what God wanted to say through Pastor Paul. This time, he emphasized on how we had only Jesus and there is no other way. He read Luke 24:17, “And he said to them, ‘What is this conversation that you are holding with each other as you walk?’ And they stood still, looking sad” . The

two disciples were sad because they did not know yet that He was alive, and when He tried to prove that He has risen, but the disciples were slow to believe. He also preached about how we should stay close to Jesus, not only after retreats and revivals. Right when he said that, I felt the Holy Spirit convicting me. After some time of more preaching, Pastor Paul said to run up and pray if you want to confess your sins. The second and third graders looked as it was a little awkward, but we were praying and confessing because of all the conviction and the guilt that burdened me. It was a great time to rededicate my life to my spiritual Father and this time not just having a relationship, but to share it.

Written by Daniel Hwang
(Youth, 6th grade)



그러므로 가라!

Inreach 회의와 코딩 학교로 긴 시간을 보낸 후 하루 중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2차 선교 대회였습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교사님들의 말에 귀 기울였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멕시코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로 사역하시는 Paul Suh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5시 55분 경 목사님이 자기소개를 끝내기를 기다렸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 올라 큰소리를 지르시기 전까지 저는 사실 전혀 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큰 목소리에서 저는 성령의 힘을 느꼈습니다. 설교 내용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와 멕시코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로 목사님의 간증이었지만 평범한 간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강한 관계를 가졌으며, 하루에 성경 구절 10장을 읽고, 구원받은 직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 놀랐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다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지 강조했고 누가복음 24장 17절을 읽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두 제자는 예수께서 살아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슬펐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났음을 증명하려 했을 때도 제자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은 또한 수련회와 부흥회 직후 만이 아닌 어떻게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지 설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성령님의 깨달음이 느껴졌습니다.

더 많은 설교를 한 후에 Paul Suh 목사님이 당신이 죄를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달려 나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조금 어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저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죄책감을 놓고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을 나의 영적 아버지께 바치고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기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번역 | 동원봉 (편집부)

Pastor Leon's Sermon Testimony

Pastor Leon's sermon was about mission. He began by saying you don't have to be special nor do anything special in order to evangelize. He said that you just have to pray that God would speak through you when you're talking to someone. He gave an example of an encounter he had with a woman he met for the first time in an airplane. He first greeted her which led to them having a conversation. As their conversation got deeper, she asked what Pastor Leon did for a living. As he responded that he was a pastor, their conversation became about God. After two weeks of that encounter, she started showing up to church. This story was really interesting to me because I always thought evangelizing was an extremely difficult process. I never thought a non-Christian would be persuaded to go to church so easily within one conversation. This story gave me a lot of hope that God is so powerful that it is possible for me to convert people into Christianity as well.

Then around the middle of his sermon, Pastor Leon took off his suit jacket and revealed his tattoos on his arms. Many of us were surprised because we didn't expect a pastor to have so many tattoos. He told us the reason behind each tattoo on his arm and they were all linked to a story in the Bible. I can remember that one of them was Moses splitting the Red Sea. Then he continued to say that his tattoos opened conversations to God as people were interested to know what each of his tattoos meant. This once again gave me hope that once I start opening up about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who he is in my life, people will be interested.

The last thing Pastor Leon said was a mission for us. He said to begin by getting to know our neighbor's names then invite them in our house for a meal.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in today's society, no one really spends the time to get to know one another. How are we going to spread the Gospel to others when we are so busy in our lives? So we can start with those who are the closest to us: our neighbors. Once we get to know them, we will be able to talk to them about God.

And Pastor Leon did not say evangelizing would be easy. However he did say it was our jobs as Christians because God assigned all Christians to be his apostles. Although I'm still intimidated about what people will think of me if I start talking about God, Pastor Leon's sermon eased my fear. I started thinking about evangelizing to those in my school, even if it's just first admitting my faith in Christ. Anyways, this mission conference got me hopes that more people around me and our church can be saved.

Written by Jennifer Lee (Youth, 10th grade)



레온 목사님 설교에 대한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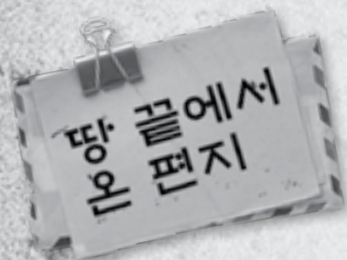
레온 목사님의 설교는 선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신이 특별하거나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처음 마주친 여성과 만남을 예로 들었는데, 그는 먼저 그녀에게 반갑게 인사했고 이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녀는 레온 목사님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목사라고 대답하면서, 그들의 대화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그녀는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교가 극도로 어려운 과정이라고 항상 생각해온 저에게 정말 흥미 있었습니다. 저는 비기독교인이 한 번의 대화를 통해 그렇게 쉽게 교회에 나오도록 설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설교의 중간쯤에 레온 목사님은 양복 재킷을 벗고 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문신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팔에 있는 각각의 문신 뒤의 이유는 성경 속 이야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홍해를 가른 모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인생에 계신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온 목사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이웃의 이름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실제로 서로 알게 되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쁠 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이웃 사람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온 목사님은 선교가 쉬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모든 크리스천을 사도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겁이 났지만 레온 목사님의 설교는 내 두려움을 많이 없애주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우선 우리 학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 저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번역 | 동원봉 (편집부)



‘산이 많은 땅’ 아이티

[아이티 나라 소개]

16세기 초 스페인의 정복으로 원주민이 거의 사라진 뒤 흑인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다. 1697년 프랑스령이 되었고 가장 번영한 프랑스령 식민지가 되었다가 흑인들의 혁명으로 1804년 흑인 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1822년 같은 섬의 동쪽을 차지하는 도미니카를 병합하기도 하였으나 1844년 도미니카 공화국은 분리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내분이 끊이지 않아 미국의 군사 점령을 받기도 했다. 아이티란 원주민의 말로 ‘산이 많은 땅’ 이란 뜻이다. 민족은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유럽인에 의해 노예로 끌려온 흑인의 후예로 구성되어 있고 혼혈민족 및 백인이 소수 있다. 수도는 포르토프랭스이며, 언어는 프랑스어, 크리올어가 공용어로 규정되어 있다. 국토의 75%가 산지이며,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이다. 오랜 독재 정치 이후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교편지]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목사님 부부가 모두 병에 걸려서 건강이 매우 안좋습니다. 고아원도 함께 운영하시는데 배에 복수가 많아 차고 다리가 부어 걷기도 불편하십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한 번 받아 보지 못하고 계신 현직인 목사님 부부입니다. 교회는 Nan Mango 마을에 위치한 Church of God 교회이고 목사님 이름은 Pierre Elmuse 이십니다. 단기 선교팀도 이곳에서 사역을 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 아프게 함께 기도한 곳입니다. 현실적인 지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흙 더미 위에서 자며 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의 시설 정비를 위한 경비입니다.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고아아이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아이티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기를
2. 허기진 아이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3. 선교사인 저희부부가 신변을 위협 받지않고 성령충만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수 있도록
4. 이곳에 세워지고 있는 예배당을 위해 모자라는 재정이 채워지도록

글 | 정광 선교사
자료 제공 | 이수복 목사 (해외 선교부)



이모저모
임파누엘 제직 세미나를 마치고

2019년 제직 세미나

2019년의 시작을 알리며 제일 먼저 잡힌 교회일정인 제직세미나가 1월12일 토요일 이른 아침 7시30분부터 190여명의 올해 임직을 받은 제직들이 모여 개회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다.

다섯시간에 걸쳐 12시 30분까지 손원배 담임목사님을 위시하여 조종연, 박성호, 김인환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고 재정지출 시행세칙 설명 및 재난 훈련 안내가 이어졌다.

첫째 시간, “제직 섬김의 기본 두 가지” 라는 제목의 손목사님의 강의에서는 한 때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사랑으로 섬길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섬김과 비판하는 혀를 통제하여 사탄의 틈틈이를 막는 집중과 혀 통제, 이 두 가지를 소 제목으로 하셨다. 기본이 되는 이 두 가지를 지키며 두루 사랑하여 사람 구원과 사람 양육에 목적을 두는 제직의 직분을 강의하셨다.

둘째 시간의 조종연 목사님의 강의는 “제직의 자세로서 중됨” 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제직의 신분을 강의하셨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야고보, 요한 등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섬기는 제직들의 자세를 강의하셨다.

셋째 시간의 박성호 목사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는 제목의 강의에서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교회가 승리하고 세상의 소망이 됨을 강의하셨다.

마지막 강의였던 김인환 목사님의 강의는 “손양원 목사의 생애를 통해서 본 제직의 자세” 였다. 손양원 목사의 일생을 증언과 자료를 통해 시청각하며 피부로 접하는 시간이었다.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는 손양원목사님의 말씀이 올해 헌신하는 제직들에게 주어진 강의였다.

이러한 재정지출 시행세칙 설명 및 재난 훈련 안내가 있었으며 다섯시간에 걸친 제직세미나의 말미를 장식하는 맛난 점심식사시간의 제직들의 사랑의 교제로 2019년의 제직세미나를 마쳤다.

글 | 윤혜석 (편집부)



선교사 파송예배

김 경수 협력선교사, 김모경 시니어선교사 그리고 박에스터 시니어선교사의 파송예배가 2019년 2월 17일 주일 오후 1시30분에 EM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세 분 파송선교사님의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사역과 사랑의 다짐을 담은 직접 쓰신 글과 파송예배의 현장을 담은 사진입니다. 모든 성도님의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분 선교사님의 새로운 출발에 축하드립니다.

지 난 2월17일 시니어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박에스터 선교사입니다. 1975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내 백성이 나를 알고 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어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겠느냐?” 였습니다. 그 때 주님께 “2년 정도 선교사로 일할게요.” 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 1987년부터 뚝이 갓 지난 둘째 딸을 두고 RN으로 일하며 밤에는 한의사 공부를 나이 40에 마칩니다. 그 뒤 한의원을 하며 멕시코 단기선교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선교지에 발을 들여 놓게 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2017년 우선 퇴직을 하고 살림을 정리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5:16을 주님이 주시며 가라(GO)라는 말씀과 함께 필리핀에서 오신 김바울 선교사가 운영하는



어 다른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헤브론 병원의 nursing school에서 가르치고 한의사로 병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며 얼마를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필리핀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감사, 찬송, 영광을 오직 주님께!!

글 | 박에스터 시니어 선교사



지 난 2월 17일 주일에 자비량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선교지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지만 협력 선교사에서 파송 선교사로 임마누엘 장로교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는 다시금 제가 네팔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저점을 다져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왜 그곳 네팔에 가 있는것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네팔에서 일하려면 나의

무엇을 어떻게 내려 놓아야 할까?” 등등...

선교지라고 해서 항상 새로운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다보니 그 언젠가부터는 매일 하던 일들을 매일 하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매일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어떨 때는 버릇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네팔에서 전임 선교사로 산지 5년이 되어 가면서 각질같이 굳어져 버린 선교 버릇들을 한꺼풀 벗겨내는 귀한 계기가 된 파송예배를 마련해 주신 선교부원들과 부족한 사람을 단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한가지 이유로 늘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 | 김경수 파송 선교사



2013년 새벽 예배 때 담임목사님으로부터 한국 방지방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주님의 일을 하시느냐는 어느 후배 목사님의 물음에 녹슬어서 죽는 것보다 닳아서 죽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제 나름의 다짐을 하고 2014년 중국 단기선교를 4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악성 급성폐렴으로 생존확률 10%라는 진단으로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이틀만에 일반

병실로 그리고 10일 후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전 교인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회개 기도와 함께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목숨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맹세하고 목상하는 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8)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요한1서 3:16)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형제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하며 아이티로 가려고 하던 중이었고, 당회에서 결정한 2019년 시니어 선교사로 제가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아이티가 폭동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그곳 정광선교사님의 연락으로 지금 바로 떠나지 못하고 5월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해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글 | 김모경 시니어 선교사



Reflection on baptism and confirmation for youth kids (February 3)

As I look back on what happened that Sunday, I thank God and his grace for them. No human can take credit for their change of hearts, which was once dead but now alive. No human can take credit for their change of status, from sinners to saints. I know that it wasn't retreat that changed their hearts. I know that it wasn't weekly church attendance that made them realize they needed Jesus. I know that, for many of them, being born into Christian families was why they were able to confess their faith in Christ. I know that it was the work of God through the Word of God by the Spirit of God. It was all God. I thank God and truly confess that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Psalm 3:8).

However, as I look back on their baptism and confirmation, I thank God that his grace is, not just to them, but also for me. As each kid received God's sign and seal of his grace upon them, I was reminded of my own baptism and confirmation. I was reminded that

God is for me, not against me. I belong to God and he is my God. Also, I was reminded that, as a pastor, my calling is not to save them, but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the Savior and help them to follow him.

So, I ask you all (as a church) that we pray for them. I told them during our baptism/confirmation classes that their struggles start now. They will face more fierce temptations and battles in their hearts. They are our brothers, sisters, sons, and daughters in Christ. Please, pray for them. Pray that they will love God and love their neighbors (Matthew 22:36-40). Pray that they will grow in the knowledge and grace of Jesus (2 Peter 3:18). Pray that they will love the church (John 15:12). Pray that they will be disciple-making witnesses to the all nations (Matthew 28:19). Pray that they will keep the faith in Christ, knowing that he is with them (Matthew 28:20).

Written by SeungGyun Kim (Youth Pastor)



청소년 자녀의 세례 및 입교에 대한 성찰

지난 2월 3일, 주일에 중고등부 자녀들의 세례와 입교에 대해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때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 있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죄인에서 성도로 상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 목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주일 교회 출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아이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은 주께 속한다" (시편 3:8)고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세례와 입교를 되돌아볼 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저에게 주신 은혜에도 감사했습니다. 각 학생이 하나님의 표시와 은혜의 봉인을 받을 때 제가 받았던 세례와 입교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시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저는 목사의 부름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그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례 / 입교 강의 시간에 그들에게 투쟁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치열한 유혹과 싸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자녀, 딸입니다. 제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 22:36-40). 그들이 예수님의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자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벧후 3:18) 그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요 15:12) 그들이 제자가 되어 만국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 28:19).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8:20)

번역 | 동원봉 (편집부)





중·고등부 선교 바자회

올해 선교의 해를 맞아 중·고등부에서는 오는 7월에 선교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31일 선교 바자회를 친교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오는 7월에 멕시코(7/23~31), 동남아시아(7/1~15), 원보이스(7/9~12), 도어 투 도어 선교에 참여할 학생 60여 명에게 선교비 지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바자 계획은 1월부터 시작하여 2월에 중·고등부 교역자분들과 상의하고 3월 심미경 중·고등부 예배 팀장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 장로님과 김현주 권사님 및 부모님들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면서, 작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할 일을 분담하고, 샵핑 리스트, 메뉴, 전문가에게 부탁드릴 사항들을 의논하며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름 방학 계획을 짜기 전에 선교를 우선으로 계획하는 은혜가 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30일, 바자회를 준비하는 토요일에는 선교 가기로 한 60여 명의 학생과 30여 명의 학부모가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며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학생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음식 준비를 돕고, 다른 그룹은 포스터, 메뉴, 기도 카드, 장식 등 마케팅을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장시간 서서 모든 빈대떡 부치기, 김밥 말기, 떡볶이, 어묵, 깻잎장아찌, 오징어 젓갈, 도토리묵, 청포묵 등을 만드는 귀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웃으며, 서로를 세워주며 바자회를 마친 교회의 모든 수고하고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고전 12:27),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선교 바자회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선교를 하러 가서 섬기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사 제공 | 심미경 (코스타리카 목장, 유스 2부 예배 팀장 및 교사)



사랑을 담은 밥 한 그릇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은혜를 마음에 담고 나오면 따뜻한 음식냄새가 우리를 부릅니다. 사랑으로 준비된 식사는 우리의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힘이 나게하는 특별한 식사임에 분명합니다. 주일 오후, 식사 봉사가 끝날 무렵 사랑의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친교위원회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1 친교실에서는 저희 교회의 식사를 책임져 주고 계신데 주일 식사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나요?

월요일까지 메뉴를 정하고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일부 식재료는 주문하고, 필요에 따라 또는 비용을 절약하려고 팀장이나 팀원들이 협력해서 여러 곳으로 발품을 팔아 장을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모든 재료를 확보하고 토요일 오전에 협력목장 식구들과 함께 주일 조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마칩니다.

2 메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두 한식인데 혹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양식을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메뉴는 지난해 음식들 중 인기가 많았던 음식들을 일순위로 해서 짭니다. 한 달 치 메뉴를 미리 짜는데 팀원들과 매주일 사역이 끝나고 모여서 의논한 후 조정도 합니다. 가끔 스파게티 같은 양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량이 약 1700명분 정도로 무척 많기 때문에 메뉴 선정이 제한적 입니다. 예를 들어 즉식 면을 삶아서 제공해야 하는 음식이나 차가워 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없는 음식들은 주일 메뉴가 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3 현재 식권값으로 내고있는 \$1.00 은 재료비로도 모자랄 것 같은데 부족한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시는지요?

사실 \$1로는 재료비 충당이 안됩니다. 보통의 셈법으로는 적자인데 부족한 비용은 교회 친교위원회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도님들께서 식권값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음식의 목적은 음식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

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수단으로 믿음의 가족들이 친교를 나누고, 또 교회의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음식을 드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을 위한 또 하나의 사역으로 친교 음식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음식값은 흑자 혹은 적자라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친교부의 음식은 교회 전체 사역의 일부분이며 사역에 소용되는 경비이므로 부족한 부분은 교회에서 충당해 주십니다.

4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왜 식권값을 꼭 받으시는지요?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듯이 본인이 수고하지 않고 받은 음식, 즉 은혜로 제공받은 식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권은 음식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도네이션' 을 받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식권값이 도네이션이라고 생각한다면, 식권값이 1불이기 때문에 한 끼니당 1불씩 내고 드신다고 보다는,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따라 \$20을 내시고 식권을 1장, 5장, 혹은 20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도네이션 하고 싶으신만큼 음식값을 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값은 상징적인 의미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감사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백준호 장로님, 정성스럽게 사역하시는데 힘이 되는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대표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약속을 할 때도 '만나서 식사 한 번 합시다' 라

고 할 정도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일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교회 복도를 지날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건네시는데 그 때마다 "저희가 사랑을 가득 담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친교 사역을 시작할 때 마음에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3:14)"

'우리가 무슨 솜씨로 음식을 만든다고 그 음식이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기쁘게 드시고, 또 음식을 드신 후 각자의 처소에서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또 친교부에서 준비해드린 재료들로 본인들의 사역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똑같은 기쁨의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섬길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사역의 결과가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친교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친교위원회에서 성도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눠 주세요.

먼저, 교회 그릇들을 집으로 가져가시는 일을 자제해 주시고, 아직 반납되지 않은교회그릇들을 신속히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 물건도 내 물건처럼 아껴서 써주세요. 음식도 많이 버려지고 일회용 그릇과 일회용 컵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밥을 더 드실 때 사용하신 그릇에 음식만 더 받아가시고, 종이컵도 물을 마실 때 마다 사용하

신 컵을 다시 쓰시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쓰신 그릇과 컵을 분리 수거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수저를 잘 반납해 주세요. 월요일에 쓰레기 봉지를 치우다 보면 그 안에 수저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남은 음식을 버릴 때 수저를 같이 버리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넷째, 부엌은 친교부원이 아니면 되도록 출입을 자제하시길 권합니다. 부엌은 바닥이 항상 미끄럽고 뜨거운 음식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는 식사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사랑을 담아 드리는 음식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끔 맛이 없고 원하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 한연선, 황지영, 형세련 (편집부)
정리 | 한연선



글·그림 | 임명진

새싹의 계시

정연복

긴 겨울 내내
알몸으로 찬바람 맞던

깡마른 나무가지 여기저기
연초록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민다

가만히 정지해 있는 듯
양증맞고 여린것들

간난아기 손톱자라듯
살끔 살끔 생명을 틔운다

차분성 있는 묵숨의 힘
조용히 보여준다

올 봄

그분께 계시 (영시)이다

임마누엘 도서실

신간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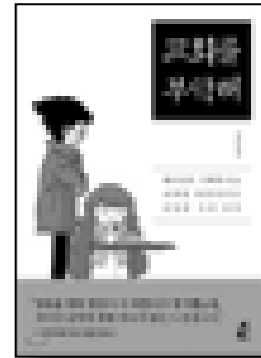
에클레시아 / 박영호 지음

요즘 부쩍 1세기 초대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흔히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모여 예배드리던 가정교회의 모습을 떠올린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지칭되던 당시 교회의 모습이 과연 그랬을까?



교회를 부탁해 / 김민석 지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되찾아가는 비밀한 책
영양실조에 걸린 소년으로 등장하는 교회 “에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카드 박사와 매튜 팀장의 분투.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교회의 길을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치밀한 추리 만화로 그려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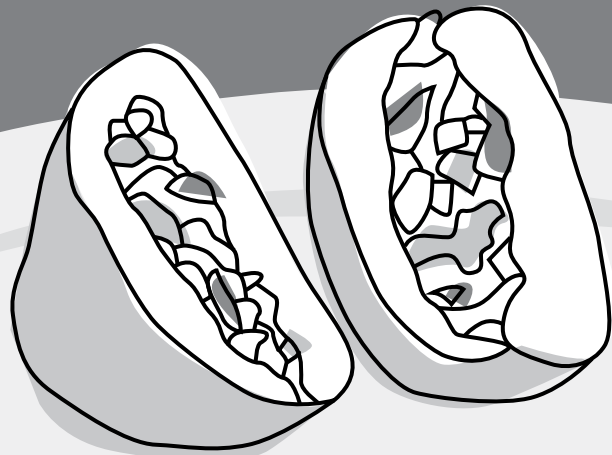
복음을 읽다 / 로완 윌리엄스 지음

전 터배리 대주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 모듈린 칼리지의 학장인 로완 윌리엄스의 마르코 복음서 해설서. 마르코 복음서의 중요 문제를 다루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살핀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복음”을 성찰케 하는 20세기 후반~21세기 초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사제-신학자의 핵심적인 면모와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닌 풍요로움과 깊이를 보여준다.



자료 제공 | 도서부

엄마 손맛 생각나는 샐러드빵



안녕하세요.

초등부 PTA(학부모회)를 섬기고 있는 김윤정입니다.

매주 교사의 직분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초등부 PTA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초등부 PTA에서는 매달 첫 주 선생님들께 응원 차 간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샌드위치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날 드셔보신 편집부 집사님께서 임마누엘 소식지에 레시피 소개를 권유하셔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것이 없고 정량없이 매번 저의 눈대중으로 맞추던 것이라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도님들께 간편하고 맛있는 옛날식 샐러드 빵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해서 가족들 간식으로 부담없이하실 수 있는거라 보시고선 손쉽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재료도 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준비하시는데에도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선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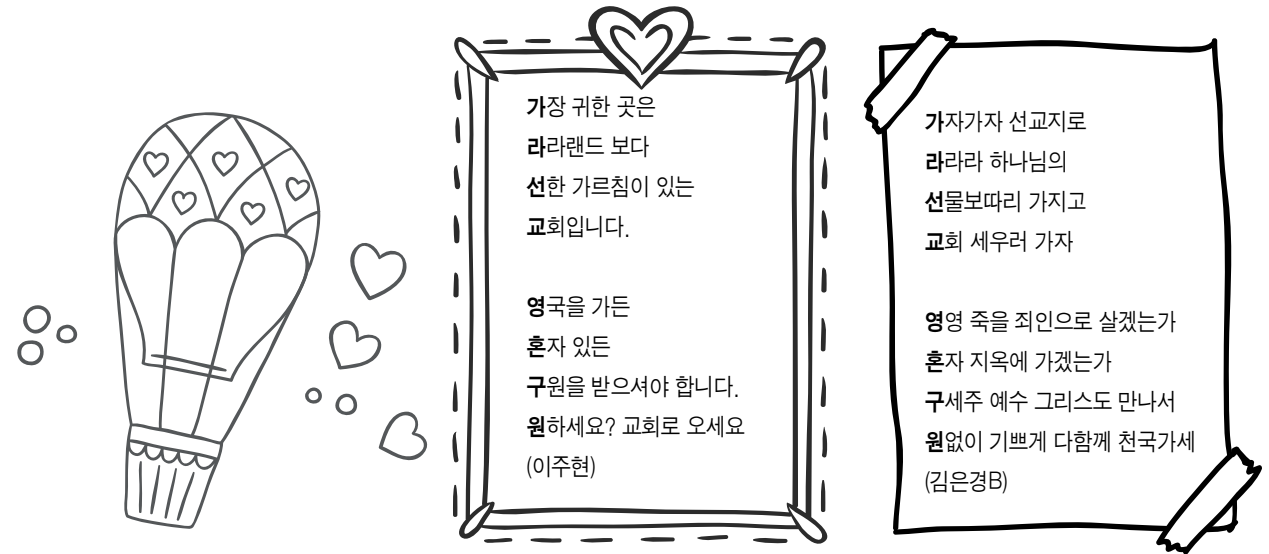
재료: 빵, 계란10개, 오이2개, 양파1/2, 허니햄 5장, 크랜베리 조금, 사과1/2개, 마요네즈, 소금, 후추

1. 계란을 삶은후 찬물에 담가놓는다.
2. 오이는 껍질만 돌려깎기해서 30분정도 소금에 절여놓는다. (오이속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양파 크랜베리 허니햄은 잘게 잘라서 준비한다.
4. 삶은계란을 으갠후 약간의 소금후추로 간을 하고 오이는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 물기를 짜서 잘게 자른다.
5. 으갠 계란, 소금에 절인 오이, 잘게 자른 양파, 크랜베리, 허니햄을 마요네즈와 함께 잘 섞는다.
6. 먹기 전에 사과를 잘게 잘라서 준비된 속에 넣어서 빵 속에 넣어준다.

글 | 김윤정 (Guiding Light 목장, 초등부 PTA 팀장)

임마누엘 사행시

임마누엘 편집부에서는 여성예배 가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호 특집 임마누엘 사행시 공모전을 가졌습니다.
“가라 선교”와 “영혼 구원”의 두 가지 분야에 공모한 재미있는 입선작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귀한 곳은
라라랜드 보다
선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국을 가든
혼자 있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하세요? 교회로 오세요
(이주현)

가자가자 선교지로
라라라 하나님의
선물보따리 가지고
교회 세우러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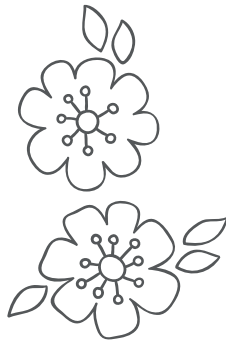
영영 죽을 죄인으로 살겠는가
혼자 지옥에 가겠는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원없이 기쁘게 다함께 천국가세
(김은경B)

가고는 싶은데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선교에 필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순
종의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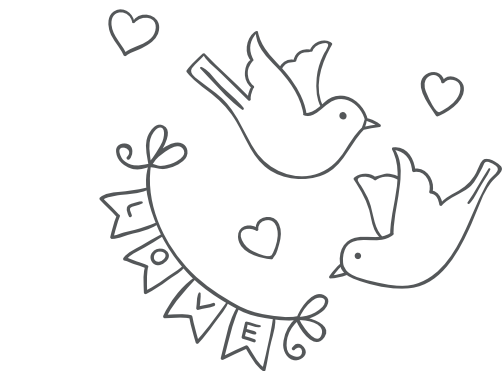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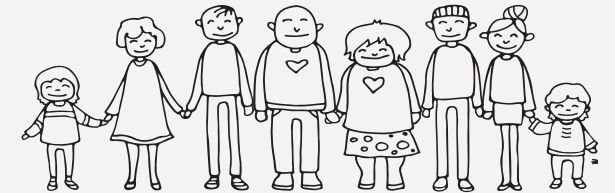
영혼 구원이 힘드세요?
혼자서 힘들면
구원투수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원하는 것 이상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전기열)

가면 됩니까?
나(라)만 빼고라고 생각했지만
선하신 하나님 뜻 이루어
교회여 모두 앞장서서 갑시다

영영 죽는다고요
혼자서만 살 순 없잖아요?
구원 열차 함께 올라타시다
원바이원, 한명씩 전도합시다!
(정주영)



영혼이 외로워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영혼을 위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원없이 전하리라
(조성현A)



가기 싫어?
나(라)도 가기 싫은데
선물 받으러 가는거야
교회의 머리되시는 하나님께서 갔다오면 큰 선물 주신데

영~입 열기가 부끄럽쥬?
혼자가 아니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거예요
원하든 원하지않든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세요, 화이팅!
(노효환)



가보면 알게 됩니다.
라(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바로 보이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영영 죽어야 할 이 죄인도
혼미한 세상 속에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원하고 믿어 구원을 받으십시오
(김민희 B)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망설였는데
라디오를 켜자마자 '가라' 시네오
선한 싸움 감당하라 명령하시는 목소리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따라 가려합니다.

영심아 같이 가자!
혼자 있지 말고 함께 가자!
구원자 예수님이 바라보고
원수들 무찌르러 함께 가자
(문은경)



찬양에 의한 회개와 회복을 나누며



저의 찬양에 의한 회개와 회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플루트를 전공했으나 대학 입시에서 두 번이나 실패를 하게 되어서 2차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전혀 악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억지로 찬양하는 자리에 섰으며 그때마다 나는 악기를 통해 찬양할 때는 내가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목소리로 찬양할 때가 좋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했던 어느 날 자선 음악회에서 유학하고 학위를 받은 능력 있는 분들과 함께 연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긴장한 상태로 연습할 때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네가 악기로 찬양할 때 보다 목소리로 찬양할 때가 좋다고 하지만 나는 네가 악기로 찬양 할 때 기쁘다.” 라는 말씀과 함께 “유학하고 잘하는 분의 음악도 기쁘게 받지만 부족한 너의 연주도 똑같이 기쁘게 받는다” 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불평하며 연주하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저는 악기로 찬양하는 자리에 순종하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고 잘 연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 늘 잡혀 있어서 늘 긴장하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등록하여 다니던 칼리지에서 발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틀리면 어쩌나 긴장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하느냐? 틀리면 어떤가? 즐겁게 연주해라. 음악은 즐거운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저는 정말 머리를 한대 얻어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음악은 언제나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좀 늦게 시작한 플루트는 음악 자체가 아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 이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입시를 치러야 하기에 숨 쉴 틈 없이 달려왔다가 거둬진 실패로 제 삶의 실패 종지부를 찍게 된 것 같아 참 많이도 아팠습니다. 저의 음악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기에 음악은 저에게 상처와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제 중심으로 살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똑바르게 연주해야 하는 짐 같은 음악으로 가르쳤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즐거운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미국 교회를 다니던 그때, 어떤 분을 통하여 임마누엘 교회에서 youth 아이들 오케스트라에서 플루트를 가르쳐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망설였지만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응답임을 믿고 다시 임마누엘 교회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힘들어했던 제가 이제는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기도하며 가르치니 전혀 힘들지 않게 되었고 아이들이 악기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음악이라는 선물을 평생 마음껏 누리며 살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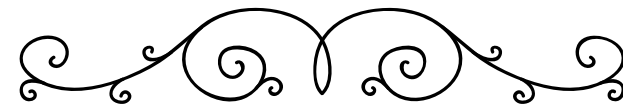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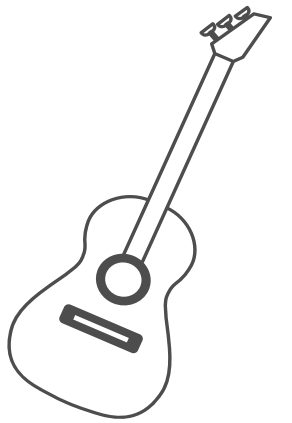
또한 매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롬 연주팀에서 암 병동을 방문하여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들에게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화요 여성 예배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저의 대학 실패를 통한 심한 열등감과 상처는 불신자였

던 제가 주님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길이 되었던것 같아서 이제는 그 실패가 저에게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큰 어려움에 낙심되어 누웠던 어느날, 이게 아닌데 싶은 마음에 갑자기 동영상을 켜놓고 벌떡 일어나 그 찬양을 따라 큰소리로 손뼉치며 부르고 난 후에 그 모든 낙심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빛으로 바뀌었던 그날을 잊을수 없습니다. 찬양이 곡조있는 기도이며 강력한 사단의 진을 무너 뜨리는 무기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서 정말 찬양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성도님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병중에 계신 분 아니면 외롭고 곤고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찬양의 선물로 연주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 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은 참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 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어릴 적 저는 주일이면 늘 교회에서 살았고 12번의 여성성경학교를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순탄한 대학 생활을 거쳐 직장생활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남편은 대만에서 태어나 두 살에 미국에 이민을 갔으나 겉모습은 영락없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미국과 한국의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는 조건은, 교회에 출석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일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저와 교제 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늘 제 마음속에는 해결 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지만 시댁 어른들은 꽤 뿌리 깊은 불교 문화에 젖어 계셨고 그것이 계속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주님이 준비하신 제 짝이

아니라면 선한 방법으로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이런 기도를 알 리 없는 남편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한국으로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일하게 될 학교 발표가 있던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배정받은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꽤 규모가 있는 이단이 설립한 곳 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학교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면 취업이 취소되고 남편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됨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상황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평안을 맛보게 하심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기도로 잠든 그 순간부터 주님은 급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육청이 모든 결정을 반복하게 하셔서 새로운 학교로 재배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여건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건 그저 내 마음, 그뿐이었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고 싶으셨던 주님은 ‘헤신아, 네 마음이면 됐다.’ 라며 저희의 결혼을 기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며 남편과 저의 믿음은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2년간의 남편 학위를 마치고 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산호세로 오게 되었습니다. 산호세로 오자마자 첫째 아이 임신을 하고 3년 터울로 둘째 아이 노아를 임신했습니다. 한번 경험해 봐서인지 둘째는 아무래도 걱정도 덜 되고 많은 것들 손에 익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016년 6월, 노아의 1개월 체크 업 날, 소아과 선생님이 갑자기 어두운 얼굴로 제 앞에 마주 앉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셨

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면서 노아에게 보이는 몇 가지 증상 때문에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약 1년간 아이를 데리고 여러 과의 스페셜리스트 의사를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경과, 외과, 종양과, 두개안면과, 이비인후과 등등 긴 인생을 살면서 우연히라도 마주하지 않으면 좋았을 법한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 거냐고... 의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절망적인 말들뿐인데, 천사 같은 얼굴로 나를 보며 방긋거리는 노아를 보면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노아는 제 아들이기 전에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님 책임 지세요.” 그리고는 마음에 끝없는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두려워 하는 생각이라 (렘 29:11)”

아멘. 내가 생각했던 재앙이 한순간에 평안으로 바뀌었고 주님은 두 번 세 번 다른 경로로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노아는 3살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어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나 세상 제일가는 수다쟁이이며 뇌의 기능도 걱정했으나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엄청난 기억력과 잔머리의 소유자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굵이 굵이의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서 동행하시고 일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늘 중보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노아가 아주 어릴 때, 아이를 데리고 한적한 공원에 나가서 아이를 담요에 칭칭 감아 안은 후 찬양을 귓가에 불러주었습니다. 요즘은 노아가 집에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비록 가사는 조금 틀리고 발음은 엉성해도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향한 저희 가정의 노래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글 | 박혜신 (파푸아뉴기니 목장, 유치부 교사)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복 예배에서 찬양을 섬기면서 믿음의 선배님 에녹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과 뜨거움이 넘쳐 흐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선배님들의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느낍니다. 에녹분들은 생의 마지막까지 예배하고자 마지막 호흡까지 생명 다해 찬송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12년차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가정에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 받았고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어도 참고 기다림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양가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언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고난 뒤의 축복을 통해 감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시할머님은 175번의 성경 통독을 하셔서 늘 성경책을 보셨고, 시아버님은 여러번의 암수술을 하시면서도 17년간 한결 같이 새벽예배를 위해 교회문을 여시는 모습을 보며 성실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통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예복 찬양을 섬길수 있도록 집에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섬김을 보여 주셨습니다. 시댁과 저희 친정은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셔서 효를 다하신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증조 할머니는 6남매의 자녀를 두고 계셨는데 가난 속에서 가족 모두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이주 하였는데, 심한 파도로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시며 일기 기도를 쓰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일본에 건너 가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일기로 쓰셨습니다.



6남매 장손 할아버지께서 월남에서 교통사고로 소천하시고 신앙의 맥이 한동안 끊어졌다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시집오셔서 증조할머니가 간축하시고 다니시던 교회에 출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할머니와 아빠를 전도하셨습니다.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1년에 드리는 제사가 많았던 집안이 엄마의 기도로 인해 추도식으로 예배 드릴수 있게 바뀐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 바닥에 앉아 예배 드리며 엄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왕이신 나의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했던 가족을 친정엄마가 전도하며 다시 대를 이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증조할머니가 섬겼던 그곳에 친정 부모님께서서는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28절)



처음 남편을 만났을때 남편은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의 목자였는데, 결혼하면서 장년부로 올라와 저도 부목자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며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었고 설교 말씀과 부목자의 삶을 살며 제가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찬양팀과 에녹 찬양팀 섬김을 통해 기쁘게 찬양으로 한주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시간과 탄자니아 목장 선교사님 후원을 통해 열방을 향한 영혼구원에 대해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2년 결혼생활동안 빛나는 햇살처럼 기쁜날도 있었고, 거센 폭풍우처럼 아픈날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고 임마누엘 지체들이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었습니다. 2018년 5번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저희 목장 식구들 중에 아기를 기다린 5가정 모두에게 아기를 갖는 감격도 함께 주셨습니다. 목장 식구들 중에 유산과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자매들과 기도하며 출산의 기쁨을 함께 느끼게 하셨습니다. 5명의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배 속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올 때까지 산모의 고통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기쁨의 감격으로 부활을 느껴보게도 하셨습니다. 것처럼 자녀는 저에게 주신 감격의 선물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기업인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군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고 천국분향에서 볼 그날의 영광에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6절)

글 | 조은아 (탄자니아 목장 부목자, 에녹 찬양팀 리더)





세례는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고,
믿음에 대한
'선택'이자
'의지'의 표현

하나님과 만난 유수경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 겨우 4개월이 된 유수경입니다.
아직 성경도 읽어보지도 못했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는 제가 세례를 받아도 될까 고민이 많았지만, 예수영접모임에서 세례는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고, 믿음에 대한 '선택'이자 '의지'의 표현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어,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세례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교육받으며 자랐고, 결혼 후에도 양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세상적인 성공, 안정적인 삶을 행복으로 알고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전력질주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해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또다른 목표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돌아보면, 늘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했고, 삶을 파고드는 고민과 어려움은 언제나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에게 그런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도 간절히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닌 지 2달 쯤 되던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는 기도를 하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됨을 쓰며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제 마음에 무한한 감사와 평안이 선물로 주어졌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남편과 부모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부정했고,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랑을 부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큰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 가족들에게 씨앗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유수경 (평안목장)



Jesus is My Lord and Savior

At the end of every service on Sunday my pastor always blessed us saying,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our God will stand forever,” but I never understood the importance behind the words. It was around May, 2018 when I was saved through the bible. I was in my room when I took my friend’s advice to read the book of James. Apathetically I forced myself to read the first chapter, but I stopped after the first chapter. I wasn’t able to read further as I started weeping quietly as I felt my broken heart heal. Yes, I had attended retreats and mission trips where I experienced strong emotional connections to God’s love, screaming uncontrollably with passion, experiencing God’s works and miracles. However, these emotional experiences and burning passion for God only lasted a couple months before I faltered back into my sinful habits. That’s where I finally came to understand that “the word of our God will stand forever.” God’s words are forever engraved on my heart as a testimony, it has changed my way of life and brought me out of darkness.

Prior to being saved, I had fallen under depression for about a year. I have to admit that my season of depression was the result of my instabilities: my Mom had only recently entered my life, my girlfriend and I had broken up, and I was in “the coming of age” stage of life. I found myself full of suicidal thoughts every moment I was free and I was constantly cursing my Mom under my breath. This led me to become more dependent on the church because church was the only place that I could express and find someone to lean on.

However, even after I claimed to be saved and I had overcome depression and my evil thoughts I found myself coated with pride and lust. Pride of thinking that I knew best and acting superior to my parents and sister. Lust of sexual desires from pornography, explicit images on the internet, and masturbation.

In my philosophy class my teacher, Mr. Dance, gave us a packet to read about the meaninglessness of life and on one of the packets was a bible verse from Ecclesiastes 1: “Vanity of vanities...” . This was a turning point in my life for I truly had found everything meaningless and vain. This verse changed my meaningless life to become full of meaning because the only meaning there was to living in this world was living for God, so my life quickly transformed to reflect God’s teachings. My desire to act upon my lust was cut from my life and my act upon being prideful unconsciously stopped. As my own will to run away from these sins prevailed, God gave me strength and wisdom.

I personally can’t say that my testimony is “one specific moment” that made me commit to God, rather it was a series of events that lead me to where I am today; a place where I can proudly profess that Jesus is my Lord and savior.

Written by David Hwang (Youth, 12th grade)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입니다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님은 항상 “풀이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고 축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의 숨은 중요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것은 2018년 5월경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권유로 요한복음을 읽기 위해 방에 있었습니다. 담담하게 첫 번째 장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첫 번째 장 이후에 바로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묵상을 시작하면서 읽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수련회와 선교 여행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강한 영적 교류를 경험하였고 열정을 통제할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의 일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정서적 경험과 불타는 열정도 제 본래의 죄 많은 습관으로 돌아 가기까지 겨우 몇 달간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리라” 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으로써 영원토록 제 가슴에 새기게 되었으며 삶의 방식을 바꾸고 저를 어둠 속에서 건져 냈습니다.

구원받기 전, 저는 약 1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우울한 시기가 제 주변의 불안정 결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엄마는 최근에야 제 인생에 뛰어 들었고 내 여자 친구와 나는 헤어졌으며, 이제 성인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살 충동으로 가득 찼고 끊임없이 엄마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제 감정을 표현하고 기댈 수 있는 누군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으며 이런 상황이 저가 더 많이 교회를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울증과 사악한 생각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부심과 정욕으로 가득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누이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우월한 사고의 자존심, 외설물에 의한 성적 욕망, 인터넷상의 노골적인 이미지, 자위.

철학 수업 기간에 선생님인 Mr. Dance는 우리에게 “삶의 허망함” 에 관한 내용의 읽기 패킷을 주었습니다. 패킷 중 하나에는 전도서 1장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 이 성경 구절은 제 무의미한 삶을 의미가 충만한 삶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도록 빠르게 변했습니다. 나의 정욕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열망과 나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자리한 교만한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는 저 자신의 의지를 버리자 하나님은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하나의 특정한 순간”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늘날 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 일련의 사건이며 이 곳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번역 | 동원봉 (편집부)





나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의 증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2017년이 저물어 가는 초겨울.

지속해서 조금씩 체중이 줄고 밥, 넘기기가 힘들어지는 제게 다니던 병원을 바꾸고 다시 검사를 받아 보자는 딸의 권유로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에 발견된 식도암은 벌써 3기라는 진단까지 내려졌습니다. 울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과 염려가 저를 무기력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각종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친정 식구들.... 아이들을 키우는 내내 마음 한쪽에 걸려있던 암에 대한 불안은 내 할 몫을 거의 다 할 즈음 사느라 잊고 지낸 옛 기억처럼 문득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항상 제가 드리는 믿음의 질량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번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주님께 간구하던 양보다 훨씬 넉넉히 주셨음을 감사하며 병원의 권유대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이고 전이된 암을 없앤 후 수술을 하기로 하고 그 해가 끝나는 12월 26일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으며 힘들고 고통도 따랐지만 매일 매일을 병원치료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겨내며 강건함과 평온함으로 힘을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여러 봉사팀의 동역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목소리를 더 높이신 목회자님들의 큰 기도가 저를 든든하고 배짱이 두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여러 곳의 교회 사역팀에 몸담고 있었던 점이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봉사팀원들은 저를 볼 때마다 힘써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고, 저도 몰랐던 사실은 그 모든 기도들이 투병 중인 저에게 믿음과에 치료, 강건함에 엄청난 Background가 되더라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놀라운 큰 은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도 이방인의 자세로 교회를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딸이 어린 손자 손녀들과 사위와 함께 뜨거운 가슴과 눈물로 주님께 목을 매는 열정으로 예배와 기도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 입니다.

밤낮없는 예배와 기도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오르도록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면 제 아픈 부분 에다 손을 얹고 거침없이 기도를 부어주시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기도의 힘이 제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투병 중임에도 점점 목 넘김이 나아지고 체중이 조금씩 불어날 때쯤, 수술로 남은 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전문의와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전문의의 소견은 처음 진단과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저의 병은 식도암 3기가 아니라 4기였고 단, 전이된 암이 없어졌을 경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다면 5년 이상 생존률이 20% 밖에는 안 되는데도 수술을 받겠느냐며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의 은혜와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울

리는 기도의 능력에 흠뻑 젖어있는 상태로 자신감이 가득해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에 미루던 수술 날짜를 다시금 정하고 수술전문의를 암의 크기와 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PET/CT 촬영을 하고 돌아간 후 나흘 뒤로 수술 날짜를 잡고 새벽에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후에 있을 수술을 대비해 기도의 용사들에게 연락을 드려 기도 부탁을 드리는 중이었는데, 딸이 들뜬 목소리로 급히 전화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병원에서 너무 놀라서 촬영 후 바로 연락을 해왔답니다.

PET/CT 촬영 결과, 제 몸에서 암세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날 수술전문의를 급히 저와 가족을 불러놓고 그토록 꺼리던 수술을 하자고 자꾸 설득하더군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이는 암세포

를 찾아서 없애버리자고요.

저는 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몸에서 암세포를 걷어내시고 매일 매일 조금씩 생명을 불어넣는 느낌을....

마음 속부터 차오르는 감사와 은혜로 암세포가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를 평안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지켜보던 딸에게 가슴이 벅차도록 성령으로 채우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베데스다연못을 찾던 병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암을 물리친 걸어다니는 기적의 산증인입니다.

할렐루야아멘!!!!

글 | 김현정A (에베소 목장, 베데스다부)



Navajo Nation을 처음가다

내 평생에 첫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단기선교를 통해 쓰시기도 하시는구나 싶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 자녀를 사용하기 위해서 엄마를 통로로 쓰신 것 같다. “나 혼자 단기선교 다녀오라고 했으면 내가 가서 과연 무엇을 하겠어?”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앞선다. 하지만 온 가족 단기선교라니 가족을 의지할 수 있었다. 하다못해 자녀들이 나바호 친구들이랑 함께 놀다 오기만 해도 그것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주 편한 맘으로 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역에 들어갔다. 늘 친숙한 부엌, 특별히 내가 뭘 잘하지는 못해도 시키는 건 잘할 수 있기에 날마다 즐거웠다. 선교지에 와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신기했다. 첫날이 정신없이 지나고, 숙소로 이동하는 한 시간 동안 캄캄한 나바호의 밤하늘은 별 천국이였다. 하늘에서 수많은 별이 쏟아지는 축복을 경험하였다. 그러다 문득 오늘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을 기록해서 내일을 대비하고 싶었다.

12/24/18 (첫날)

저녁에 각 사역 돌아보는 시간에 갑자기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은 온종일 주방에서 바쁘게 때로는 쉬는 시간을 가질 때도 말씀 잔치에 초대된 아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도 동역해야 함을 잊고 분주했던 것이었다. 아침에 팀 전체가 영적 리더십의 인도로

큐티 말씀을 나누었는데 받은 말씀은 눅 2:1~14 가운데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내일부터는 영적 민감함으로 기도하며 주방 사역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

12/25/18 (이튿날)

주방 사역은 첫날보다 아주 익숙해졌고 메뉴도 미리 준비해둔 터라 바쁘지 않았다. 이럴 때 ‘기도로 동역해야지~’ 하며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는 끝을 내버린 것 같다. 주방에서 보이는 친교실에서는 조금 먼저 도착한 친구들과 Youth 리더십들이 진행하는 게임을 즐겁게 또는 진지하게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너무나 귀한 광경이었다. 우리 교회 정말 착하고 귀한 Youth 청소년 언니와 오빠들이 기쁨 가득한 얼굴로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도 귀하고 호기심에 또는 재미있을 것으로 보여 참여하는 인디언 친구들의 모습도 너무나 귀해 보였다. 그러는 중에도 몇몇 아이들은 주방 쪽으로 와서 물을 마시며 간식거리에 관심이 많아 챙겨가기도 하고 서서 먹기도 하였는데 내 기준으로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에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나눠야지~” 라고 했던 말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100%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말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했다.

태권도 사역, 스포츠 사역, 아트 & 크래프트 사역, 우쿨렐레 사역 등의 사역들이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방은 아트 & 크래프트 교실과 가까워서 잠깐 들어다보았는데 아주 어린 친구 옆에 앉아서 느낀 건 너무나 예쁘게 많이 잘 웃는다는 사실이었다. 이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소망 없던 환경에서 예수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소망을 보게 되고 생명을 얻을 텐데 생각으로 나바호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간구했다. 또 오후에 집마다 방문하여 선물 상자를 전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고 오신 팀의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열약한 환경으로 인해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말에 나도 한 번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2/26/18 (마지막 날)

아침, 주방 사역팀은 사역 시작 전에 기도로 시작하였다. 주방 사역팀에게도 방문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누구든지 따라나서고 싶으면 갈 수 있다고 하셔서 점심 식사 후에 뒷정리를 빨리해놓고 오후에 출발하는 방문 사역팀에 몇 명과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이남중 선교사님이 운전하시는 밴과 이영기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밴에 어린이와 어른들 11명이 나누어 타고 이동하였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길을 가다가 집이 나오면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찾아 들어가서 “야떼~ (Hi~)” 인사하며 남자분과는 악수하기도 하고 여자분과는 허깅을 하고 싶은 맘이 들 때는 조금 쑥스러워하더라도 허깅을 하기로 선택했었고... 여섯 집을 다녔는데 한 집만 빼고는 모두 대문을 열고 들어오게 해주었다. 준비해 간 선물을 드리고 캐롤을 부르고 리더십이 짧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겠다고 말하면 모두가 좋다며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몸

의 아픈 곳을 말하며 기도해달라고 했다. 우리 모든 일행이 간절히 기도를 끝내고 나온 집이 여섯 집, 너무나 초라했다. 넓은 벌판에 많지 않은 4-5채의 집 그리고 소나 양이나 말의 울타리 같은 것도 있다. 물론 집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이었고 모두 노인분들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느꼈던 공통적인 인상은 이방인에게 크게 적대감이 없었던 것. 상대가 누군 줄 알고 (물론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왔다는 소개는 하였지만)문을 열어주는 것, 집 안으로 초대해주는 것, 뭘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냐고 물으면 금방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는 것 등 그분들의 심성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집안은 땀감으로 데워져 너무나 따뜻하고 문밖으로 나오면 넓고 황량한 허허벌판에 먼지바람과 떨기나무(bush)만 눈에 보이며 쓸쓸하고 적막한 나라로 느껴졌다.

하나님은 나바호 영혼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옛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계속 나바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신앙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일하실 것이다.

“2019년 선교의 해” 에 “그러므로 가라” 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VIP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글 | 김현미 (비취켄 목장 부목자)

“God is working all the time”

When I went to the mission trip, I enjoyed it, Especially playing with kids younger than me like Ryoko (A baby I met), I loved looking and working with people in my age, younger, and sometimes older. It was pretty fun playing and teaching them how to do art (directions) and helping them out. I think they enjoyed the praise time when Kevin was up there. It was fun going there. I enjoyed every single moment because I knew that God was working during our V.B.S. When we went caroling it was fun too! We would always smile and they would smile back, I would be so happy, But when there was dogs it was a little scary and sad. They didn't have any owners, One time I saw a little pug standing on the road. I felt bad for it!!! :(

I really think God was happy with everything, like the V.B.S, I want to go again!!!!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매우 즐거웠습니다. 특히 료코 (내가 만난 아기)처럼 저보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 때 즐거웠습니다. 제 또래나 나보다 어린 아이들 때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함께 일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들도 케빈이 왔을 때 함께한 찬양 시간을 즐겼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곳에 간 것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V.B.S. 동안 일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마다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캐롤을 부르며 다닐 때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웃을 것이고 그들도 미소로 화답할 것입니다. 나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개가 있을 때는 조금 무섭고 슬펐습니다. 주인이 없는 개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도로에 서 있는 작은 퍼그를 보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

“저는 하나님께서 이전 선교여행에서 있었던 V.B.S. 와 같은 모든 일들에 행복해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곳에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글 | 강하은 (Grace Kang, 비취켄 목장, 초등부 5학년)



아이티 선교를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2월 아이티 선교팀 일원이었던 고등부 한이름이라고 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티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아버지를 통해 아이티로 단기선교를 함께 가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글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단기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지만 그건 모두 중고등부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들과 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 선교를 하러 간다는 것이 잘 상상이 되지 않았고, 이전의 선교여행만큼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더 솔직히는 제가 선교여행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여행에서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싶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배들을 통해 제 믿음이 성장하는 체험을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선교와 인생에 대한 제 생각들을 바꿀만한 무언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선교팀이 구성되고 매주 모임이 이어졌지만, 아이티 선교를 하러 가긴 가는 건가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오히려 모임이 이어질수록 좌절되고 쓸쓸한 마음만 더 커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뭔가 진전되는 것은 없다는 느낌이 저를 실망스럽게 만들었고, 뭔가 팀이 제대로 만들어져 간다는 느낌보다는 다들 관심이 없거나 서로 갈등하는 듯한 모습만 제 눈에 비추어졌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당선들이 불편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 같은 한국식 문화에 반발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남 탓만 하다 보니 정작 저 스스로는 선교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고, 내가 선교를 왜 가는지 진정한 목적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길 원한다는 말로 포장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흘러 선교를 떠나는 날이 되었고, 우리 팀은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쓸쓸함과 교만으로 굳어져 있었어요. 아이티를 향해 가는 동안 저는 제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절망스러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갔던 이전의 선교들은 모두 리더들이 미리 잘 준비해서 제게 손가락으로 떠먹여 준 것이어서 저는 고민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티 선교에서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으며 선교와 선교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좀 그렇게 해주어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이티에 도착해 그 도시와 거리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황폐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죠.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고민은 선교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비록 제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선교 활동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마음이 굳어 있어서 정작 그곳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게 후회가 됩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과 아이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제 눈에는 그들의 죄 된 모습만 자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들은 가지고 간 물건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바로 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는 늘 가치 없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해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딱딱한 제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뜻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팀원들이 함께 모여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 나누어졌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 저

는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자 애써오신 어른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성숙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볼 수 있었고, 저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선교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우리에게 훌륭한 선교사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지 그 순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도,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원들의 서로 다른 성격과 경험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우리 팀을 향한 저의 원망과 실망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적은 제 경험에만 근거했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저의 죄 된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죄를 짓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미쁘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티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제 마음을 부수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만 뿌리를 두고 진정으로 성장해가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한이름 (CBI 목장, 중고등부 10학년)

2018 Haiti Mission Testimony

When my father first told me about this mission and asked if I would be interested to go, I was not sure. I had previously been to some missions, but all of them were with my youth group and with people at similar age group. I could not imagine going on a mission with adults; furthermore, I thought it would not be as good as my previous missions. To be completely honest, I cared a lot about what kind of experience I would get out of a mission. It was very important to me. I would chase after emotional and “hyped” worships because my faith was partially based on that. However, God had a plan to reveal something that would change my faith and the way I thought about missions and my life.

The Haiti mission did not feel like it was going to happen until our team first met and started have weekly meetings. During those meetings, my frustration and bitterness started to grow. I was frustrated because it did not seem like we were making any progress. Everyone seemed to be either careless or conflicting with others, without being constructive. My bitterness also grew be-

cause I could not help but seeing the Korean culture of elders having younger people do some things that they feel uncomfortable or embarrassed to do. I felt betrayed and bitter, and my heart was getting prideful. As a result, I could not really prepare myself or find my true intention going on this trip. I perfunctorily said to myself that I wish to know God’s heart just a bit more.

When the day finally came and our team arrived at the airport, my heart was still solidified with bitterness and pride. During the whole flight, I was frustrated because I felt I was not ready at all. Seeing right now, my prior missions were all so easy in terms of knowing what to do, because I was always instructed or “spoon-fed” by the leaders. However, during this mission trip, I think I was lost for awhile because there was not really anyone who would tell me what specific things I should do to prepare myself or what bible verses I should read to remind myself of God’s purpose and plan for us and this mission. I felt even more betrayed by the adults because I thought they were supposed to guide the younger ones.

As we arrived at Haiti, I was severely shocked when I looked at the city and the streets. I saw people who are living their lives in such a ruined environment. Since I personally went really unprepared and un-knowledgeable about the situation there, it was a big surprise for me. This was when I started to think to myself what can I do to provide all these people with what they need. And this thought trail continued until the last few days of the mission.

The mission went on although my heart was still cold. Now I regret a lot of about this because I could not really look at the kids with the love of God due to my heart’s unreadiness and hardness. Even though I was trying to serve the children there, I did not feel like I was doing it out my genuine love for God and for them. And when I interacted with the kids, I could not help myself but seeing their sinfulness. I had what they really needed, which was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ut they were asking for other materialistic and earthly things. However, God revealed the image of myself through them, and how even though God has exactly what I need, I was wander off and chase after worthless things. God was starting to soften my heart and revealing me of his will.

One night, I remember during a debrief, our team was all gathered at a table and we

shared what happened on that day. Even though I do not remember every specific thing that they said, I definitely remember being in awe and respect of the adults who have been living many more years of Christian lives than me. I saw them and had a great urge to be more mature and live a life that truly reflects how God wants me to live, just like what these adults were trying to do. At that moment I remembered how faithful God has been throughout this whole mission trip. How He has provided us with an amazing missionary, missionary Chung, how He has provide us with his touch of healing when some of our members got sick, and how He has provided us with faith and the Holy Spirit when we were to share His gospel boldly and when our hearts were cold. My bitterness towards my team was gone too because I could finally see how God has given this team of people with so many different personalities and experiences to use for His glory. And I was reminded that my faith should not be solely based on the experiences because I knew God was more than that. His love and faithfulness changed how I lived my life and what kind of things I valued.

After about a month now, I am still struggling with my sinfulness. And I have been tempted and fallen to my sinfulness again. However, I want to remember God’s grace and faithfulness to me and run back to him every time I seem to have fallen into

my sinfulness. During this mission trip God has broken my heart of stone and gave me a conviction to live a life according to his will. I want to truly mature and have faith that is only based on the truth.

Written by Irum Han (10th grade)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2017년 선교지를 Rock Springs로 정하면서 국내 선교를 시작하였고, 2018년 남부평원 여름 단기선교 당시 헌신적으로 섬기는 타 목원들의 모습에 깊이 감동하여, 저희 부부는 우리 목장에도 국내 선교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가정을 보내 달라고 각각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2개월 뒤에 살아계신 주님은 그대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제게는 건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빨리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주세요.”라고 기도할 땐 “No나 Wait” 이 많지만,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8년 겨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제게 국내 선교를 통해 이 지역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라는 강한 의지를 부여 주셨습니다.

우선, 각 지역에 퍼져있는 굿뉴스클럽의 수많은 아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는 일에 자원했습니다. 굿뉴스클럽을 위해 오랜 기간 봉사하시던 분들과 친교실에 모여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주안에 하나 되어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 포장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화요일 저녁, 쿠파티노의 학원 사역에 투입되었습니다. 멀리 Pleasanton에서 오시는 신실한 집사님과 찬양과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팀장님의 말씀 전하는 모습을 배우고 도우며 그곳에 모인 아이들을 주님 주신 눈으로 보았습니다. 복음 제시 시간에 인상을 찡그리고, 발을 떨며 불편하게 앉아 있는 6학년 사이먼이라는 중국 남자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안 듣는 척 무심한 척하면서도 슬그머니 듣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아이 뒤에서 있었고 어깨를 어루만지며 사이먼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내리도록, 성령님께서 터치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에 사이먼이 눈감고 손을 번쩍 드는게 아닙니까? 그 날 이후 하나님께서 사이먼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 아이와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이먼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셋째, East San Jose에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사는 Lions Villa의 아이들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가르치면서,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물었더니,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부활절은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토끼와 에그 헌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그 날들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이스터가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날임을, 예수님 한 분의 탄생과 부활에 대해 전 세계가 두 번이나 축하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주이가 산만한 아이들, 호기심 가득 뿜어지라 쳐다보며 복음의 씨앗을 흡수하는 아이들 등등 다양각색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주님의 때에 그 아이들을 통해 그 가정도 구원해주실 것이기에 어린이 선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꾸준히 사랑의 관계를 쌓아오며, 굳게 닫힌 마음의 철문을 열게 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주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에 마음 깊이 존경하며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는 평소와 다르게 국내 선교 사역으로 기쁘고도 바쁜 12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원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고 더불어 또 다른 풍성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시부모님 두 분이 함께 한 교회에 정해서 다니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 여전도회에 가입하시고 오히려 아버님의 남전도회 가입을 권유하셨습니다.

둘째, 이른 새벽 신문부터 보시던 친정엄마는 성경(카톡)부터 읽으신다고 합니다.

셋째, 중고등부 수련회에 둘째가 참석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넷째, 사랑하는 목원께서 앞으로 국내 선교를 열심히 같이 섬기겠다고 자원해 주신 것도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다섯째, 수요일에 간증 후 이틀만에 봉사가 몸에 배인 영성 깊은 새가정을 목장에 보내주셔서 목장차원에서 더욱 국내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간절한 소망이 있거나, 참고 인내하며 흑암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때, 혼자 외롭게 갈 때는 지루하고 지칩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국내선교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하게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으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는지 세밀히 알게 하시며, 내 역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그 가운데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국내선교를 목원과 협력하여 목장차원에서 올해 계속 기쁨으로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글 | 강주연 (이스트 산호세 목장 부목자, 국내선교부 어린이 선교팀)



즐거움이 넘치는 자바 목장!

북부평원 자바 목장을 섬기고 있는 노범준, 배정현 집사입니다. 우리 목장은 현재 6가정이 함께 매주 금요일 저녁 모여 교제하고 있습니다.

목원들은 대부분 30대~40대의 부부와 신생아부터 8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 자녀 중 반 이상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아이들이라 매주 목장이 역동적이답니다. 목장을 하고 있다 보면 2층에서 장난감으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처음엔 서로 몰랐던 아이들이 목장을 하면서 친해지고 함께 노는 모습

이 정말 예쁩니다. 얼마 전 태어난 로이와 도겸이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목장입니다. 주보에 두 아이의 출산 소식이 한 날 같이 실리게 되어서 많은 임마누엘 가족들께서 축하를 해주셨어요.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장은 각 가정에서 예배부, 선교부, 친교부, 교육부, 식사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예배부에서는 매주 아이들과 함께 부를 찬양과 그 전주 목사님 설교를 예약해주시는 순서를 정해주시고 선교부는 선교사님과의 소통을 담당하셔서 기도 제목 등을 공유해 주십니다.

친교부에서는 때때로 재밌는 피크닉을 계획해주시고 교육부는 어린이들과 함께할 활동을 준비해줍니다. 식사부에서는 매주 식사 메뉴를 정해주시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시기도 합니다.

매주 목장 모임은 금요일 저녁 7시경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각 가정에서 비빔밥 재료를 따로 준비해 와서 함께 먹기도 하고, 식사부에서 준비해주시는 정성이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식사 후엔 놀고 있는 아이들을 안고 함께 찬양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치동부 아이들이 요즘 많이 부르는 “달려갈래요”, “쿨루랄라 찬양해요” 등의 찬양을 할 때면 아이들이 더욱 신나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기도한 후 함께 다과를 나누며 그 주 설교 요약을 맡으신 분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목장 진행 안을 따라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 요약을 위해 다시 한번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출장이나 여



행으로 그 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더라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준비하는 멋진 목원들이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밤 9시가 넘게 됩니다. 가정별로 돌아가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한 후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목장모임이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 밖을 나서면 아이들이 또 앞마당에서 다시 뛰어놀기 시작하다가 엄마·아빠가 아이들의 손을 잡기도 하고 안고 가면서 역동적인 목장 모임을 맺습니다.

얼마 전 선교대회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김귀영, 조주현 선교사님께서 오시게 되어 또 귀한 말씀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목장에 오셔서 목장과 가정교회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주 뵙지 못하는데도 우리와 편안한 교제를 나누어주시는 선교사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김귀영 선교사님께서 가정에서 특히 아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모임 내내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한 자매님께 또 말씀하신 “은비야, 니가 잘해야 돼!” 는 웬지 저희 마음에 한참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귀에 선교사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리는 느낌입니다.

이제 곧 저희 목장의 2가정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곳에서의 믿음의 교제가 바탕이 되어 그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목장의 VIP들께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많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글 | 노범준, 배정현 (북부평원 자바목장)





리더들의 모임 '파워 브라질 목장'

안녕하세요! 저희 브라질 목장을 소개합니다. 브라질 목장은 트라이벨리지역인 플레존트, 더블린, 산라몬에서 사는 가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브라질 목장은 현재 다섯가족이 모이며 저희 식구들은 황대행목자를 중심으로 김병모, 이광열, 김준용, 김도영형제님과 김인정, 이철허, 김현경, 오지선 자매님, 부목자인 저 이영은과 올리브블레스 어린이목장의 황성일, 김준영, 황시내, 김준서, 김주은, 김준혁, 이어진, 이고은, 이숨, 김진아입니다.

저희 목장 식구들은 어른목장과 어린이목장 안에서 모두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뛰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되어 있는 귀한 구성입니다. 특히 어린이목장은 4살부터 18살까지 연령의 폭이 매우 큰 편이지만 어린 친구들은 언니, 오빠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편이고 언니, 오빠들은 동생들과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목장모임을 기다리고 목장모임이 있는 다음날 있는 한글학교 숙제를 목장모임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운영은 목장순서지로 주일예배의 설교말씀과 함께 각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목장에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목자가정인 된 부족한 저희



리더쉽이지만 훌륭한 목장식구들이 잘 섬겨주고 인내하며 목장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정기적인 목장심방을 해주시는 담당 이영기목사님과 사도님, 여러 담당 장로님들 덕분에 교회를 향한 성도로서의 삶과 목장의 방향성을 재확인 받으며 목장이 세워져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브라질 목장에서 후원하는 브라질의 이종선, 정민실선교사님은 WEC선교단체 파송으로 세명의 자녀(18,16,13yrs)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은 브라질 몬테카를로에서 다국적의 선교사님들과 팀으로 세계 각지에서 온 현지인들에게 타문화선교사, 선교지향적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선교사님의 한결같은 기도제목은 순도 100%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다국적 팀사역을 하는 스들이 신학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신학교 입학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지원자들이 입학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선교사님의 가뭄에 대한 긴급기도를 목장에서 함께 하는데 비가 너무 와서 다시 기도해야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목장소개를 마무리하며 저희 목장은 머리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목장을 통한 섬김과 연합으로 한몸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깨어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선교호를 통해 저희 목장을 돌아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브라질 목장식구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글 | 이영은
(동부평원 브라질 목장)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은 안다.

- 빌 하이벨스 -

은혜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목자, 부목자의 길

안녕하세요. 가정교회 목자, 부목자로 섬기게 된 김태형, 조혜명입니다. 목자로 부르심을 받고 흔쾌히 감사하며 순종하고 받아들인 남편의 간증보다는 막바지까지 싫다고 도망 다니기 바빴고 불순종자였던 저의 고백을 나누어 봅니다. 주님께서 그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기쁜 맘으로 목자와 부목자로서 헌신하시는 고백들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태신앙인 이지만 믿음 없이 이름뿐인 신자로 출석 도장 찍듯 예배만 대충 드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되풀이하던 저희 부부였습니다. 결혼생활 6년 후, 그토록 바라던 아기 소식이 없자, 우리는 포기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며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 부부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신앙의 권유로 성경학교에 등록을 하고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토록 원했지만 포기했었던 아기를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으면서 저희 부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장” 이란 곳에 소속해 함께 나누게 되었고,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의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낮가림이 심해서 목장에 나가가기까지 많이 망설이기도 했으나, 막상 부딪혀보니 쓸데없는 고민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쁘고, 새롭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장모임 안에서 4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성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원 가정의 숫자가 늘어나고 VIP를 모시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분가해서 목자와 부목자로서 섬김의 길로 나아가야 했었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지목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또한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저희 남편은 기쁜 맘으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힘들게 공부하며 조금 있으면 나 자신을 위한 CAREER도 가지고 돈도 버는 부푼 꿈과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귀찮고 싫었습니다. 4개월 동안 때가 아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도망만 다녔습니다.

어느 날, 화요일성 예배 모임에서 쉬는 시간에 친한 자매들과 부목자가 싫다며 투정 부리던 중 처음 보던 한 자매가 해맑게 웃으며 다가와서 “저도 처음엔 부담스럽고 싫어서 도망 다녔는데 막상,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보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등, 고민과는 달리 주님께서 목장 식구들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조만간에 목자, 부목자 세미나 모임에서 만나요?”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QT 할 때마다 ‘순종하라’ 는 주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눌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에게 8년 만에 보내주신 우리 하은이가 제 눈에 활짝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를 선물로 주시고, 새집과 목장 식구들, 남편의 튼튼한 직장,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180도 바뀐 남편의 믿음 생활 등, 정말 많은 감사의 기도가 있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그저 공짜로 받기만 하고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더 늦기 전에 주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목자와 부목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만났던 자매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목장 식구들께서 먼저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며 감싸주십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6-7)

섬김의 길은 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족한 저희 부부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숙해지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주님께서 지금 그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부르실 때,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쁜 맘으로 헌신하시는 새로운 목자와 부목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글 | 조혜명, 김태형 (산호세 평원 포카라 목장)

와이스크림 한스쿵보다 달콤하고
커피 한잔 보다 진한 섬김을 나누는 사람들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황의철
기획	장은영
편집 및 번역	김연희 동원봉 윤혜석 한연선 형세련 황지영
사진	김홍대 맹은희 박순우 박종현 윤영숙
디자인	강미영 국세은 윤주영 이지은 임은영 한혁

www.epcsj.org
408 263 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